



3일 오전 찾은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야외주차장에는 장기 방치 차량 13대가 주차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야외주차장에 쓰레기가 가득한 채 장기 방치된 차량. 양유리기자

“주차난 일상인데”... 일부 주차장 방치차량 가득

도보 5분 거리 야외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3대
주택지 밀집 지역 주차난 극심... 다중 주차 일상
“근처 학교 있어 아이들도 많은데 밤길엔 무서워”

“밤이면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2층, 3층을 넘어서 4층 주차까지도 해요. 몇 년째 상황이 그대로라서 답답하죠.”
3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노상주차장. 이곳에서는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직선거리로 약 400m, 도보로 5분 이면 시작과 끝에 닿는 주차장에는 약 90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중 장기 방치 차량이 13대나 발견됐다. 10대 중 1대 이상이 ‘유령 차’인 셈이다.

방치 차량들은 모두 타이어에 바 람이 빠져 가라앉아 있거나 내부에

쓰레기가 가득했다. 휴먼지 등이 쌓여 차량 시트와 내부에 쌓인 도 시들의 색깔이 변색된 차량도 다수 발견됐다.
일부 차량은 번호판이 사라진 채 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제주 시가 발부한 방치차량 강제처리 예 고장 등이 부착된 차량도 눈에 띄 었다.

문제는 이곳이 주택지가 밀집한 지역이라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 린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민석 (40)씨는 “저녁이 되면 이 넓은 도 로에 차선이 하나만 남을 정도로 주차할 곳이 항상 부족하다”며

“5년 전 이사했을 때부터 쪽 자리 를 지킨 차도 있고, 방치 차량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해 스트레스가 크 다”고 말했다.

해당 주차장에 관한 글이 스투드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 기도 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오늘 주차하는데 깜짝 놀랐다. 공영주차 장에 쓰레기가 가득한 차가 10대나 된다”며 “신고해도 답이 없더라” 고 했다.

더군다나 근처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아동들이 자주 이동하 는 곳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밤길에는 지나가기 두렵다”는 주 민들의 반응도 있었다.

이도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방 치 차량 대부분은 체납 등을 이유 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가 다수” 라며 “해당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현장 방

문 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장기 방치 차량은 총 171대다. 이중 116건이 자진 처리됐고, 46건이 폐 차됐다. 9건은 자진 처리 또는 폐차 를 앞두고 있다.

방치 차량은 자진 처리 시 승용 차 기준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된 다. 이에 응하지 않아 폐차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후에도 조치가 없 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치 차량의 경우 우선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강제 견인, 폐차를 실시한다”며 “해당 구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주민센터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 문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위급 상황시 119 신고는 이렇게...”

제주소방, 카드뉴스 제작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 신고 접근 성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출동 체 계를 구축하기 위해 ‘119 신고 이 령계 하세요’ 카드뉴스를 제작했 다.

3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3~2025년) 도내 119 신고 접 수는 연평균 약 18만건에 달한다. 2023년 19만6795건, 2024년 18만463 건, 2025년 16만8015건 등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구급 5만5031 건 ▷안내·상담 5만8108건 ▷구조 2만3078건 ▷화재 2462건 ▷오접 속·무응답 2만9184건 등이다.

이처럼 119 신고가 일상적으로 이 뤄지는 만큼 소방은 신고 접수 과 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질문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카드뉴스에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 신 고하기 ▷정확한 주소를 몰라도 큰



건물, 전봇대 번호 등으로 위치 설 명하기 ▷신고와 동시에 119 출동 대가 출동합니다 등 신고 과정에서 도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 용을 담았다.

카드뉴스는 관공서와 읍·면·동 주민센터,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비치했다.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버스·소방서 전광판에 도 송출되며 소방본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도 홍보된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카드뉴스 홍보를 통해 신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골든타임을 지 키는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유리기자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보호종 서식지 훼손”

3일 꽃자왈사람들 성명

제주시가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야생 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됐다는 지적 이 제기됐다.

3일 (사)꽃자왈사람들에 따르면 제주시가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 인 제13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 업 현장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제우고사리삼’ 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새우난초’ 서식지가 훼손됐다.

꽃자왈사람들은 “중장비가 진입 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현장 상황은 처참했다”며 “꾸찌뽕나무, 때죽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윤 노리나무 등 직경 10~15cm 이상의 수목 다수가 벌채된 채 쌓여 있었 다”고 했다.

또 “중장비가 통과하며 제우고사 리삼이 짓밟혔고, 벌채된 나무가 제우고사리삼 서식지 위로 적재되 는 등 서식지 환경이 훼손됐다”며 “해당 지역은 거문오름용암류가 형 성한 꽃자왈 지대로, 세계적 멸종



방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제우고사리삼 서식지 정경. 꽃자왈사람들 제공

위기종인 제우고사리삼의 자생지” 라고 강조했다.

이어 “훼손이 발생한 지역은 지 난해 기관이 시민의 기금을 모아 매입해 보전하고 있는 곳이 포함됐 다”며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보전 성과마저도 훼손된 상황에 참담함 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선충 방제로 인한 꽃자왈 및 보호종 서식지 훼손 문 제는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 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 고 있다”며 “보호종 서식지 내 중 장비 방제 전면 중단 등 실효성 있 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유리기자

신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제주자치경찰, 13일까지... 관련 업체 불시점검 병행

출입 금지 업소, 학교·학원 주변, 청소년 밀집지 대상

제주자치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청 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자치경찰단은 3월 본격적인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 출과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4개조(14명)가 도내 청 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집중 점 검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인

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 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또한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SNS)을 통 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델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 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 대 해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 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

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 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유해약 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 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 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 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 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 적용된다.

백귀탁기자 haru@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감귤 신제품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리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 일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분당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www.sa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